

LA 산불 사망 24명으로 늘어...샌프란시스코 면적 잿더미

캘리포니아 등 9개주 소방차 1354대 1만 4000여명 투입 진화 중간힘 15일까지 강풍 예보 확산 우려...실종 16명·건물 1만2000여채 불타

미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동시다발 산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풍까지 예보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1000대가 넘는 소방차와 1만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강풍이 들이닥치기 전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국립기상청은 오는 15일까지 화재 상황에 대해 적색경보를 발령했으며, 돌풍을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 기간 풍속이 시속 50마일(80km/h)에 달하고 산에는 돌풍이 불어 시속 70마일(113km/h)에 달할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 기상학자 리치 톰슨은 14일이 가장 위험한 날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매우 강한 돌풍과 건조한 대기, 그리고 매우 마른 수풀로 인해 여전히 매우 위험한 화재 기상 조건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및 미국내 기타 9개 주와 멕시코에서 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진압에

나서고 있다.

투입된 인력은 1만4000명 이상으로, 소방차와 항공기도 각각 1354대와 함께 84대가 투입됐다.

이날 오전 현재 서부 해안의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팰리세이즈 산불'을 비롯해 LA 카운티 내 4건의 산불로 160k㎡가 불에 탔다.

이는 샌프란시스코보다 넓은 면적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가장 큰 산불인 '팰리세이즈 산불'은 약 11%의 진압률을 보이고 있고, 한인들의 주요 거주지 인근인 동부 내륙 알타데나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의 진압률은 27%다.

지난 11일에는 태평양 해안에서 멀지 않은 태평양 팰리세이즈 인근의 영화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 등 유명 인사들이 거주하는 만데빌 캐년에서 불길 이 진압됐다.

산불이 계속되면서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망자 24명에, 실종자도 16명으로 증가했다.

당국이 실종사 신고 센터를 만들고 피해 지역에

대한 격자 수색에도 나선 만큼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피해는 계속 늘어나며, 불에 탄 건물도 1만채를 훌쩍 넘어 1만2000채에 달했다.

LA카운티에서 15만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700명 이상이 9개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이튼 산불'로만 7000개 이상의 구조물이 불에 탔다. 다만, 이 산불로 인한 대피 명령은 대부분 해제됐다.

지난 9일 날씨 데이터를 제공하는 민간기업 아쿠웨더에 따르면 1350억 달러(199조원)에서 1500억 달러(221조원) 사이의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아직 산불이 진압되지 않은 만큼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NBC와 인터뷰에서 이번 산불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많은 주민이 화재를 피해 대피하면서 빈집이나 상점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등의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CNN에 따르면 이날까지 약탈 혐의로 29명이 체포됐다. /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형 산불이 닷새째 확산 중인 가운데 이미 불길에 휩쓸고 간 알타데나 주택가에 미끄럼틀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 생포 북한군 2명 포로 교환 이뤄질까

젤렌스키 자국군과 교환 제안

포로중 1명 "여기서 살고 싶어"

우크라 남거나 3국행 등 주목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억류한 자국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붙잡은 북한군을 풀어 줄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군 포로들의 신병처리 기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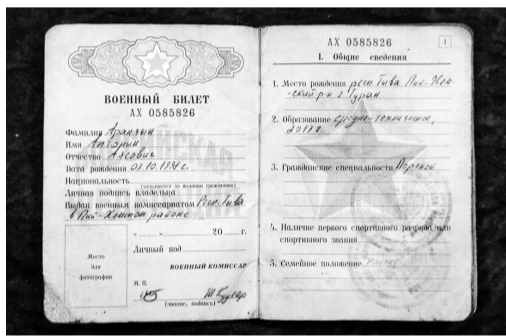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아직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북한군 포로 처리 문제는 복잡한 섀베프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글로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젤렌스키는 자국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모습과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SBU)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20세, 26세의 병사로 부상을 입고 현재 수도 키이우로 이송돼 신문을 받고 있다.

전시 포로의 처우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은 적대행위 종료 후 포로의 석방과 송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생포 당시 북한군 병사가 지니고 있던 신분증.

그러나 북한군 포로의 신병처리 문제에는 전쟁의 두 주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뿐만 아니라 파병국인 북한, 우크라이나의 간접 지원국인 한국 등 4개국을 비롯해 여러 법적·절차적 문제가 걸려있어 난해한 '고차 방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당면한 문제는 아직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인정하지 않는 이상 포로들의 신분 확인과 송환 과정에서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전쟁에서 적대국 사이의 교전 중 붙잡힌 이들은 원칙적으로 전쟁 포로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포로 교환 대상이 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들의 소속을 끝까지 확인

해주지 않으면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더구나 러시아는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을 자국 국민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신분증을 주는 등 위장 전술까지 구사해왔다.

또한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된다고 해도, 자국으로 복귀 시 탄압과 처벌 등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 의무의 예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군 병사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남거나 제3국행 가능성도 있다.

국제법상으로도 북한으로의 송환은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이들 북한군 포로 신문 영상을 보면 1명은 최소 우크라이나에 남을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포로 1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특별히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다시 위쪽으로 돌렸다.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포로 신문에 통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신문에 직접 참여하지, 또는 이들의 한국 송환을 타진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제네바 협약을 통해 전쟁포로와 민간인 보호 임무를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기관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도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북한군 포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들의 처우와 신병 처리와 관련해 국제인도법 준수를 당사국들에 계속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 퇴임·트럼프 취임전 가자휴전 타결?

양측 수뇌부 잇단 가능성 언급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수뇌부에서 잇따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스라엘도 협상단을 파견하는 등 진지한 동향을 보이는 만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직전에 실제로 휴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가지지구에서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을 석방하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펜스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종료 직전 협상이 타결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예상 시점은 "아마도 (바이든의 임기) 마지막 날이나 그 전날쯤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이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진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하마스 쪽을 강하게 압박한 덕분에라는 점도 강조했다.

펜스 당선인은 "협상이 언제 타결될지와 관계없이 (타결된다면) 하마스에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가에는 이스라엘에 "하마스의 마지막 부대들과 지도부까지 완벽히 제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과 가지지구의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인사들에 대한 "매우 공격적인 제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가자전쟁의 당사자인 하마스를 향해 자신의 취임일인 1월 20일까지 이스라엘

의 인질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큰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펜스의 이런 발언들이 보도되기 직전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다소 신중한 태도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인질석방 협상에 대해 "우리는 매우 근접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우리가 여전히 멀리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고문인 브렛 매커크가 현재 카타르에 있다는 점도 거론하며 "그는 일주일 내내 그곳에서 (다른) 중재자들과 함께 양측에 제시할 문건의 최종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취임일인) 20일 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장담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임기 종료 직전까지 가지지구의 휴전과 인질석방 협상 타결에 진력하는 모습이 다.

미 차기정부의 2인자와 현직 국가안보보좌관이 가지지구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뉴앙스의 발언을 거의 동시에 내놓으면서 금명간 휴전이 성사될 지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 전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 가지지구 휴전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연합뉴스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